

## 42. 영적 투쟁의 현장을 보여줌

2012. 10.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다니엘서 9장의 예언 공부를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0장은 영적 투쟁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 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0:1~7] 바사 왕 고레스 삼 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 정월 이십사 일에 내가 히 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6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1. 애청자들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듣는 분이 내용을 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애청자들께서 말씀 CD를 신청해서 자주 들으시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말씀 CD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진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인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당부했거든요.(딤후2:15)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는 성경 공부인가를 확인하고 충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의 예언을 마흔 한 번을 강론했습니다. 올바르게 전달되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요약하면 2300주야의 끝에 성소정결사업으로 작은 뿔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더 이상 성소를 헐고 타미드를 스스로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진 그 바벨론이 된 조직으로부터, 성소정결사업으로 회복된 진리의 교리와 신조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여자의 후손의 진정한 남은 자손으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라 하는 것이 성소정결사업의 핵심 내용이지요.

2. 예, 그렇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이 사실을 성경으로 확인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신도들로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도 종반에 접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내용이 영적 투쟁의 현장을 보여준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예, 다니엘 10장은 고레스 왕 3년에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고레스는 원년에 유다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왕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할 때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1장 마지막 절에 기록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라고 했지요. 그때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고 고레스에 대하여 오래 전에 예언한 이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고레스는 감동을 받았으며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는 조서를 내렸지요. 그런데 여기 10장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도 건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때 다니엘은 88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노년이지요. 이런 사실에 의하여 1장에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기록한 것이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3주간 동안 특별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지요.

[단10:1~3] 바사 왕 고레스 삼 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다니엘이 삼주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식을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 것이지요. 요즘도 건강을 위하여 과일 금식, 채소 금식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것은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 것을 뜻하는 금식이지요. 다니엘도 그렇게 금식한 것 같습니다.

3. 목사님 잠깐만요. 1장에는 다니엘이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고기와 좋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했으니 다니엘에 평소에 그런 것을 먹었다는 말인지요?

답: 아마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되지요. 1장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로 재임하고 유다에 살 때에 식생활과 같이 자기 스스로 성경의 지시에 합당한 식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이 금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대를 사는 우리들의 사정과 다른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육식이 괜찮다는 이론을 펴려고 하면 그리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음식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지요.

4.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애청자들 중에서 의문이 있을까 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답: 여기 슬퍼하면 금식했는데, 아마도 슬퍼할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하겠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놓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기록을 살피면 아마도 고레스가 이스라엘 해방 조서와 성전 재건 조서를 내린 사실에 대하여 어떤 불리한 조치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민지에서 반대 상소가 올라오고 신하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안팎으로 무슨 변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걱정하고 슬픔 중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10: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것을 보고 슬퍼한 것은 아닐까요?

답: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이상을 보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 금식하였습니다. 12절에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첫날부터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상을 보여주며 그것을 깨닫도록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1절에 먼저 기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 전쟁을 세상의 전쟁이기보다는 세상 권세의 배후에서 일하는 영적 세계의 전쟁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본문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 함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군요.

답: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지요. 4~6절까지입니다.

[단10:4~7] 정월 이십사 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6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예, 기록된 대로 히데겔 강가에서 이상을 볼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을 했네요. 이런 기록은 혼자 있으면서 황홀경 속에서 이상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비판을 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겁나서 도망갔지요.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계시가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데서 비밀리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주 금식을 했는데, 아마도 유월절 기간이었던 것네요. 유월절은 정월 14일이고 15일은 무교절이지요 정월 1일부터 21일간 금식하고 금식이 끝난 지 3일 되었을 때 히데겔 강변에서 계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읽은 말씀에 묘사된 모습이 계 1:13~16에 기록된 것과 흡사하거든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다니엘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셨을 때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지요. 예수님

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여러 곳에서 확인되지만요.

7. 다니엘은 그렇게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아주 힘든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요.

답: 아마도 계시를 볼 때에 겪는 신체 상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요한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성경을 읽고 이야기 하지요.

[단10:8,9]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다니엘에 이상을 볼 때 몸에 힘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살갓이 썩은 듯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시커멓게 되었던 것 같지요.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가히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밤모 섬에서 계시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1: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요한은 간단하게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네요.

아마도 우리가 맨 눈으로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군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흑암 중이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맨 눈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선지자 에게 오셔서 가르쳐주실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내용을 계시로 펼쳐 보이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8. 그런데 다니엘은 7장 8장 9장에서도 계시를 보았는데, 10장에 기록한 이런 상태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왜 10장에서는 이런 상태에 빠졌지요?

답: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7장을 읽으면 다니엘에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이상을 보여준 것이지요. 8장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7장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또 다니엘에게 이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9장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의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여기 묘사한 모습은 아마도 다니엘이 묘사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기록했겠지요. 5절 6절을 보면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6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고 했습니다. 요한이 본 인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아

주 흡사합니다. 계1:13~16에 있는 말씀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두 기록이 아주 비슷하지요.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는 이왕에 타인보다 얼굴이 상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밤모 섬에서 외롭게 유배생활하고 있는 요한에게 임함심으로 요한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계시를 보고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같은 사실로 임하신 것이지요.

9. 예, 그럴 것 같군요.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된 다니엘이 능히 계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조처를 취하셨군요.

답: 당연하지요. 다니엘에 계시를 보아야 하니까요. 그것은 그의 기록을 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깐 반드시 계시를 보고 기록해야 했지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일으키고 능히 계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단10:10,11]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여기 한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피면 가브리엘의 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일으키고 힘을 주고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손길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최선의 상태에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각 개인마다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셈이지요. 히브리서도 “히1: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단10:11,12을 읽으면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것이 확인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10:11,12]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 이 말은 9장에서도 가브리엘이 말했지요. 다니엘은 이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들었는데요, 마지막 한 번은 10:19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는 능히 계시를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브리

엘이 그를 일으켰는데 다니엘은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는 상태로 엎드렸습니다. 그때 다신 가브리엘이 일어서라고 하였고 그제야 다니엘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힘이 빠졌어 엎드린 상태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엎드린 자세는 굴복의 자세이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였을 때 계시의 내용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그 기도에 대한 조처는 신속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3주 만에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 겸비한 마음과 자세로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런 진정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지나쳐버리지 않으신다는 보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상태로 드러져야 할 것 같고, 언제나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증을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 인시킵니다. 모든 예언은 구주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외칩니다. 오늘도 이 구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시간이 되었군요. 다음 시간을 약속하고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신속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천사의 손을 통하여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계시를 깨달아 밝은 진리의 빛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